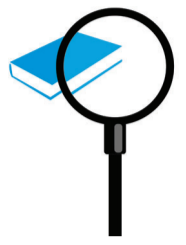


# 찬란하고 유구한 중동·이슬람 도시문화로 초대합니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 종교 너머 도시

김수완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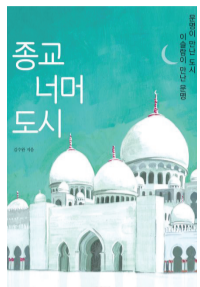
예루살렘, 두바이, 카이로, 다마스쿠스, 바그다드, 이스탄불, 이스파한...

이들 도시들의 공통점은 중동에 자리한다는 사실이다. 동시에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고 주요 종교들이 탄생한 지역이기도 하다.

중동, 이슬람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점은 대체적으로 파편적이다. 메소포타미아문명, 이집트문명이 발원하고 유럽 르네상스에 영향을 미친 이슬람 문명의 토대임에도 그 중요성이 간과된 측면이 있다.

아마도 갈등과 충돌이라는 '프레임'에서 기인한 면이 크다. 중동 지역과 이슬람을 서구 세계의 대척점으로 묘사해온 관행 또는 편견이 낳은 결과다.

인류는 문명의 발전과 함께 진화해왔고 그 중심에는 도시가 있었다. 정치를 비롯해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는 도시라는 토대 위에서 발전했다. 많은 이들이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



로' 도시를 꼽는 것은 그런 이유다. "물리적인 환경이나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구성된 공간이 아니라 인생 주기가 있는 유기체처럼"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중동과 이슬람지역의 도시의 역사와 문화, 종교 등의 렌즈로 들여다본 '종교 너머 도시'는 15개 도시들의 문명사를 담고 있다. 저자는 김수완 한국외국어대 융합인재학부 중동·이슬람 전략 교수다. 한국이슬람학회 부회장이자 한국중동학회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아랍 사회 문화 코드의 이해' 등의 책을 펴냈다.

"이 책은 도시라는 프레임을 넘어 중동·이슬람 지역의 역사, 문화, 종교, 문학,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탐구를 시도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차곡차곡 기록되고 쌓인 중동·이슬람 도시 문화는 어떤 경우에 불안정한 파편과 흔적으로 남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삶과 행태 그리고 가치관과 사고에 영향을 주며 태어나고 성장하고 쇠퇴하는 과정을 통해 진화해왔다."

책은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종교적 공간으로서의 이슬람과 이슬람이 만든 도시라는 축이 그것이다.

먼저 역사와 만나는 도시에서는 세 개의 도시를 만난다. 비단과 향료가 닿는 곳인 다마스쿠스는 현존하는 도시 중 역사가 가장 오래된 도시로 평가받는 곳이다. 이곳은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과 함께



중동은 문화와 역사와 종교가 공존하는 지역이다. 사진은 예루살렘의 황금 돔 사원. <술탄스북 제공>

이슬람 문화의 4대 도시 중 하나이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대상 무역로'였으며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을 탄압하던 시절 예수의 음성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배경이 됐다.

카이로는 지중해 지역의 중심지이며 '아랍문화의 최전선'에 해당한다. 아랍어로 '승리'를 뜻하는 카이로는 나일강 삼각주의 아래와 사막이 만나는 지점이다. 저자는 "고대 이집트 문명의 요람이자 초기 기독교 문명의 모판으로. 또한 이슬람 문명이 확장하는 전초기지"라고 본다.

예루살렘은 '하나의 신이 사는 집, 두 민족의 수

도, 세 종교의 사원'으로 표현된다. 성경학자 스티븐 본츠는 책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에서 수메르어로 '예루'는 '토대', '거주', '지역'이라고 설명한다. 고대 가나안 신앙에 근거하면 '살렘'은 '평화'라는 의미로 수렴된다.

동서양을 떠나 종교와 사상은 지혜가 깃들어 있었다. 특히 이슬람 문명은 중세에 이르러 문학과 예술, 종교를 매개로 놀라운 꽃을 피웠다. 바그다드를 일컬어 '천일야화'의 고장이라 부르는 것은 이슬람문화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이야기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 있는 액자 형식의 전형이 바로

'천일야화'다. 인류문명의 거대한 박물관을 품으려면 이스탄불을 빼놓을 수 없다.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은 "동양과 서양, 고대와 현대, 이슬람과 기독교 등이 만나 어우러진 곳, 신화와 종교, 사상과 예술이 융합되어 전파된 곳"이다.

이밖에 책에는 이란이 품은 오하시스 이스파한을 비롯해 사막 위에 펼쳐진 스마트 시티 두바이, 혁신과 가능성으로 여는 미래의 도시 네옴시티 등이 소개돼 있다.

<술탄스북·3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왜 쓰는가

필립 로스 지음, 정영목 옮김

1998년 '미국의 목가'로 풀리처상을 수상한 그는 국가 예술 훈장을 받았고 2002년에는 미국 문학예술아카데미 최고 권위의 상 골드 메달을 받았다. 2012년에는 스페인 최고 권위의 아스투리아스 왕세자 상을, 2013년에는 프랑스 최고 권위의 코망도르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수여받았다. 이밖에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펜/솔베로 상 등 유수의 문학상을 받았다.

지난 2018년 85세 일기로 세상을 떠난 미국 현대문학의 거장, 문학의 화신 필립로스의 이력이다. '인디펜던트'는 그를 가리켜 "모두가 필립 로스가 되길 원했지만, 그 누구도 근접조차 하지 못했다"고 평했다.

이번에 5주기를 맞아 출간된 '왜 쓰는가'는 필립 로스가 평생을 통해 치열하게 써온 산문을 묶은 책이다. 책은 필립 로스의 평생의 주제는 무엇이고 문학은 어떤 의미였는지를 담고 있다.

"방에서 혼자 글을 쓰는 것이 내 삶의 거의 전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파티를 즐기듯이 나는 혼자 있는 것을 즐깁니다."

한마디로 그의 삶은 글쓰기의 연속이었다. 생 자체가 문학이었으며 그의 글은 문학 본질을 드러내는 방향을 모색했다.

책에는 글쓰기라는 행위와 문학이라는 서사예술에 대한 산문이 실려 있다. 자신의 소설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창작론이나 문학론의 관점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탁월한 작가이자 열광적인 독자가였던 필립 로스는 인터뷰 진행자로서 그가 만난 인물들과의 대화를 다룬다. 밀란 쿤데라, 이반 클리마, 아하론 아펠펠트 등 다양한 조건에서 자신만의 문학세계를 이룬 작가들과 나는 대담이 그것이다.

<문학동네·2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전기수 설날

김동진 지음

때는 18세기 후반 조선사회. 이옥은 사회 변화의 모습을 자신의 글에 반영하려다 정조의 귀정(歸政)에 따르지 않아 미움을 받는다. 이옥은 귀양을 가게 되고 노역을 하게 되는 처지에 놓인다. 문제가 됐던 이옥의 글은 소품체로 쓰였는데 당시 권력을 거머쥔 엘리트 문인의 눈에는 가치 없는 글로 보였다.

김동진 작가의 역사소설 '전기수 설날'은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인물을 다룬 작품이다. 일간지 기자로 현장을 누볐던 작가는 역사 속 숨겨진 인물을 발탁해 숨결을 불어넣는 작품을 써왔다. 영화 '밀정'의 모티브가 된 논픽션 '1923 경성을 뒤흔든 사람들', 역사팩션 소설 '임진무쌍 황진'이 있다.

한미한 집안의 출신이었던 이옥에게는 늘 집안을 일으켜야 하는 중압감이 있었다. 다행히 과거를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되고 그는 한양으로 향한다. 그의 여정은 어떤 노인의 부탁을 받아 조준이라는 소년과 동행한다. 얼마 후에는 박선경과 김판석이라는 인물도 함께 가게 된다.

이들 네 명의 사람들은 같은 곳에서 묵으며 음식을 기다린다. 그러는 동안 한양의 문물에 이목을 빼앗기고 예상치 못한 일과 부딪힌다. 선경이 뜻밖의 사고를 당하고 조준은 생활비로 충당할 산삼을 도둑맞게 되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전개된다.

소설은 조준이 그의 재능을 눈여겨본 세책상의 권유로 책을 읽어주는 전기수로 나서면서 흥미롭게 펼쳐진다. 거리가아기꾼이 된 전기수를 비롯해 정조의 왕권 강화를 못 마땅해하는 신하들, 의관들이 엮어내는 미스터리한 이야기가 얽히고설키며 재미와 긴장을 높인다.



<싱긋·1만6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아치울의 리듬

호원숙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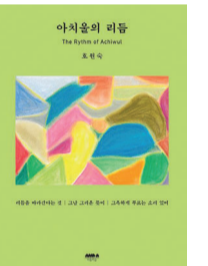
소설가 박완서가 살던 서울 아치울 '노란집'에는 이제 딸 호원숙이 머물며 글을 쓴다. 2011년 어머니 타계 후 이 집에 머물며 '우리가 참 아끼던 사람' 등 어머니 관련 책을 엮은 호원숙이 산문집 '아치울의 리듬'을 펴냈다.

"자유롭게 흘러나오는 생각을 글로 쓰는 게" 어릴 적부터 꿈이었던 저자는 "어머니의 충실한 심부름꾼으로도 족했지만 어머니를 그만큼 사랑했기에 글을 쓰면서 저 자신을 알게 되었고 나만이 가진 언어의 리듬과 감각을 발견했고, 저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꽃과 나무의 리듬', '마을의 리듬', '우주의 리듬' 3장으로 나눠 실린 80여편의 단상은 저자가 '스쳐 지나가는 자연과 좋은 인연의 사람들, 일용할 양식들의 감촉을 기록한 것들'로 자신이 바라본 것들이 영감을 주고 아름다웠기에 잊지 않기 위해 쓴 글들이다.

저자는 전인권과 한영애의 노래에 눈물 짓고, 배우 김고은이 선전하는 화장품을 구입하고, 바느질거리를 주문해 무언가를 만들고, 감사전을 부치고 '술망'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또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수공업 시대의 노동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등장한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첫 소설 '나무'를 발표했다를 때의 기억, 학교 가는 길에 어머니 원고 심부름으로 신문사 등을 찾았던 이야기, 베스트셀러 '파친코'에 등장하는 어머니의 글에 대한 단상 등을 만날 수 있다. 또 이해인 수녀, 이영전 문화부 장관, 김채원 작가 등과의 소중한 인연에 대한 글도 담겼다. 책에는 저자와 할머니가 쓴 책에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그림이 함께 실려 있다.



<마음의 숲·1만6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